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NK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지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868 (심의일자 2024.10.17) 유효기간: 2024.10.25 ~ 2025.10.24  
연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d-13136호(2024.10.25 ~ 2025.10.24)

부산체육

2025. 07 Vol. 80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80**  
2025. 07

금빛 훈련일지  
BNK부산은행 옥상팀

Sports is Busan  
2025 부산 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함께하는 부산체육  
수영구 SUP협회



SUP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07 Vol. 80

발행일 2025년 7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80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부산 스포츠

- 04 **체전은 지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전국 체육 관계자 모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 08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구대5총협회 박준현 회장
- 12 **금빛 훈련일지**  
BNK부산은행 육상팀
- 16 **푸른 바다, 큰 꿈**  
엄궁중학교 조정부

### 산 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20 **경기장 밖 부산**  
자연과 문화의 숨결 연계구 & 수영구
- 24 **Sports is Busan**  
2025 부산 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 28 **전국체전 trivia**  
90년대 전국체전, 민족의 화합에서 미래 스포츠의 장으로
- 32 **함께하는 부산체육**  
수영구 SUP협회

### 하 나된 꿈, 행복으로

- 36 **스포츠 기자단**  
- 제20회 여성체육대회  
- 2025 동의대학교 펜싱부 한우리 감독
- 40 **종목 소개**  
SUP
- 44 **스포츠&컬처**  
2025 낙동강 따라 모바일 스탬프투어

### 나와 너, 우리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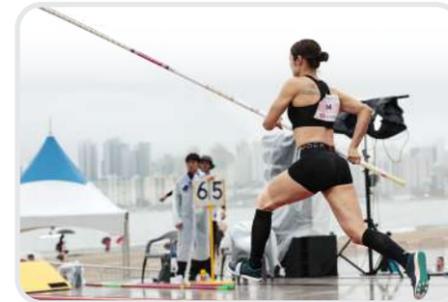
- 46 **BSC 뉴스**  
- 전국 최초 '체육국' 출범 100일,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체육회 동행 행사 개최  
- 2025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단합체육대회 개최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08 부산체육인



12 금빛 훈련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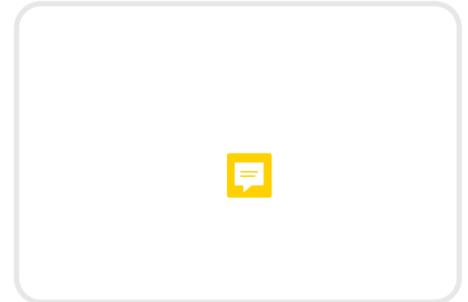
24 Sports is Busan



32 함께하는 부산체육



36 스포츠 기자단



40 종목 소개



46 BSC 뉴스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전국체육대회 운영부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전국 체육 관계자 모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6월 24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앙 및 시도 관계관 회의와 환영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부산광역시, 전국 시도 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등 전국체육대회 관계관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전국체육대회 개최식 출입 동선 안내를 위해 부산종합운동장 참관 후 진행되었으며, 성화봉송 주자모집 홍보영상 소개부터 전국체전기획단의 전국체육대회 추진상황 보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및 검사 안내 준비상황 보고, 전국체육대회 향후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 종료 후 열린 환영 만찬에는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부산을 찾은 전국 체육 관계자들과 화합을 다졌다.

장인화 회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국민 통합과 지역 상생, 나아가 부산이 스포츠 천국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오늘 관계관 회의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다짐하고 준비상황을 공유하여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며, 50개 종목에 3만여 명의 전국 시도별 대표 선수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체전 체전운영팀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부산광역시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 모집과 함께 5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자원봉사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는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총 1만 200명 모집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및 각 구·군 전국체육대회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받았으며, 선정 결과는 7월 중 개별 통보 및 구·군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성화봉송 주자로 선발된 시민들은 사전교육과 예행연습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적인 봉송을 시작한다. 성화봉송 주자에게는 운동화, 유니폼 등 주자 용품 및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성화봉송 인증서, 기념사진 및 영상을 제공하여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은 감천문화마을, 해동용궁사, 해운대 등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하여 집라인, 유람선, 패들보드 등 이색적인 방식을 통해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부산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화합의 축제'로 구성된다. 성화는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나흘 동안 16개 구·군 151개 봉송 구간을 순회한 후 개막식이 열리는 10월 17일에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입장한다.

또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4천 명을 선발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종합상황실 운영 지원, 개폐회식 운영 지원, 경기장 안내소 운영 지원 등의 업무가 주어진다. 자원봉사자 중 100명은 리더 자원봉사자로 선발할 예정이며, 리더 자원봉사자는 경기장별 자원봉사자 근태 사항, 직무 배치,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유니폼과 기념품, 활동비가 지급된다.

체육국 손태욱 국장은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는 스포츠 성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우리가 만들어 갈 전국체육대회의 뜨거운 순간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진심’과 ‘관심’

부산광역시근대5종협회  
박준현 회장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렸다.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박준현 회장.  
올해 부산광역시근대5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그날 현장에서 다시 한번 회장으로서의 각오를 굳게 다졌다고 한다.



## 선수들의 최선에 진심으로 답하다

“어린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잘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직접 보니 놀랍고 대단했어요. 입상한 친구들에게 시상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박준현 회장이 취임한 후 처음 참석한 전국 대회였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근대5종이 아닌 근대3종(수영, 사격, 달리기) 경기가 진행됐다. 그는 세 종목의 경기 장소를 모두 찾아가 선수들을 응원했다. 초등학생 선수들이 빗속을 달리는 모습에 자신의 아이가 떠올랐고, 선수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다고. 대회 이후에는 유소년팀 감독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박준현 회장은 2012년에 (주)금샘홀딩스를 창업, 건설 및 부동산 기반 시공을 비롯해 펜션, F&D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 어린 나이부터 사업에만 매진하다 보니 사회봉사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며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직을 추천받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인연을 맺고 2022년부터 3년간 이사직을 역임한 후 올해 부산광역시근대5종협회 회장까지 맡게 된 것. 골프가 취미였던 그는 부산광역시근대5종협회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근대5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게 근대5종인 것 같아요. 다섯 종목을 다 잘해야 하고, 올림픽을 위해 시작된 유일한 종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대5종 경기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5회 하계 올림픽에서 처음 열렸다. 5개 종목은 전쟁과 연관 있는데, 그중 승마 종목에서 말 배정이 경기 20분 전에 랜덤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전쟁 중 다른 사람의 말을 훔쳐 타야 했던 상황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박준현 회장은 이렇게 종목의 기원부터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근대5종이 정말 매력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종목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알고 보면 재미있는 근대5종**

부산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근대5종 최초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다수의 국제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듯 부산 근대5종팀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근대5종이라는 종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박준현 회장은 늘 아쉽다.

**“근대5종의 다섯 개 종목을 전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여느 인기 종목처럼 일상에서 근대5종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친숙한 스포츠가 되길 바랍니다.”**

근대5종은 펜싱, 수영, 레이저런(육상, 사격), 승마 각 종목의 기록을 점수로 환산하여 총득점이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개인 경기 기준으로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펜싱은 단판으로 승부를 가린다. 단, 1분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선수 모두 패한 것으로 처리하며 승패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다. 수영은 200m의 기록을 재서 시간대별로 점수를 매긴다. 영법 제약은 없으나 대부분 가장 빠른 영법인 자유형으로 경기를 치른다. 레이저런은 육상과 사격을 하여 역시 시간대별로 점수를 매긴다. 총 3,000m를 달리는데 먼저 600m를 달린 다음 사격을 한다. 사격에서 표적을 명중시켜야 계속 달릴 수 있고 그렇게 600m 달리기와 사격을 반복한다. 사격에 시간제한은 없으나, 총 네 번의 사격에 각각 5발의 기회만 주어진다. 그리고 최근 승마 대신 장애물 종목이 추가되었다. 랜덤으로 배정된 말이 성적을 너무 좌우하다 보니 오로

지 선수들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겨룰 수 있도록 종목 구성에 변화를 주게 된 것. 장애물 종목은 8개의 장애물로 구성된 60~70m의 코스를 통과하는 시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종목이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새로워진 근대5종의 첫 무대가 될 예정이다.

**아낌없는 지원으로 기반을 다지다**

현재 부산광역시근대5종협회에는 20여 명의 임원이 활동 중이다. 박준현 회장이 직접 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역대 근대5종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기금이 모여야 지원이 잘 이루어질 테니 많은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쯤 개최를 목표로 전국 유소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회를 통해 선수 활성화와 종목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대5종팀은 BNK저축은행으로부터 운영비와 훈련복, 경기에 필요한 용품 등을 후원받고 있어 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박준현 회장은 협회 자체적으로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지도자들에게 숙소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지도자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지도자는 선수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선수들의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부산광역시근대5종협회 연혁**

- 1982.2. 대한근대5종연맹 창설, 준가맹단체 부산근대5종연맹
- 1990.2. 부산근대5종연맹 정가맹단체 등록
- 1990.10.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 1991.10. 전국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우승
- 1992.10. 전국체육대회 3년 연속 종합우승, 남자일반부 박정철 선수 대회 3연패 달성
- 2005.9. 2005년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 및 단체 1위, 부산진고 출신 김기현 선수 대회 2관왕
- 2006.9. 2006년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 및 단체 1위, 부산체고 출신 이승현 선수 대회 2관왕
- 2010.11. 광주아시안경기대회 단체 1위, 부산진고 출신 김기현 선수 금메달 획득
- 2012.10.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3위, 4년 연속 1000점대 획득
- 2018.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근대5종 여자 개인전 부산광역시체육회 김세희 선수 은메달 획득
- 2019.11. 중국 근대5종 아시아선수권대회 부산광역시체육회 김세희 선수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
- 2021.7. 2020 도쿄 올림픽 김세희 11위 여자올림픽 최고 성적
- 2022.10. 전국체육대회 남고 단체 2위, 개인 2위, 계주 1위 / 세계선수권 계주 3위 손정욱
- 2023.7. U-19 세계선수권 계주 1위 조한서
- 2023.10. 전국체육대회 남고 단체 1위, 개인 2위, 3위, 계주 2위
- 2024.4. 아시아선수권 U-19 개인 1위 양우승
- 2024.4. 아시아선수권 여자일반부 개인 3위, 단체 1위, 혼성 1위 박가연
- 2024.10.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일반부 단체 1위

또한,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유소년 대회를 통해 선수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체육고등학교와 수영 등 각 종목 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유망 선수가 근대5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준현 회장은 거듭해서 사람들이 근대5종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근대5종은 다섯 종목이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다섯 종목 중 한 종목만 좋아해도 근대5종으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달리기부터 차레로 한 종목씩 직접 해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종목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수, 지도자, 팬, 행정가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부산 근대5종이 전국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함께 성장한다’라는 자신의 인생철학과 ‘스포츠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인내, 존중, 책임감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근대5종협회 회장으로 서 역할을 충실히 행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트랙, 필드에서 빛나는 뜨거운 열정과 꿈

## BNK부산은행 육상팀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부산지역 최초로 민간기업 육상팀을 만들었다. 부산지역 내 우수한 선수를 적극 발굴해 기초 스포츠 종목인 육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아낌없는 사회공헌사업지원을 펼치고 있다. 허들, 높이뛰기 등 종목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 이재홍 감독의 세심한 훈련 프로그램

보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육상은 부상 위험이 높은 스포츠이다. 이재홍 감독은 계절과 기후, 훈련장 환경, 부상 등의 선수 컨디션을 고려해 세심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장 이승윤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이승윤 선수는 경기력도 뛰어나지만, 후배들에게도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하고 개선할 점을 잡아주는 등 플레이 코치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지요.”

이 감독은 좋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해 육상 인프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끈기’와 경기 때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BNK부산은행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산 출신의 이재홍 감독은 초등 5학년 때 육상에 입문해 다양한 종목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동아대학교 체육교육학 석사를 마친 후 ‘제6회 그리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제19회 이탈리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여러 국제 대회에서 육상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했고, 현재는 대한육상연맹 부회장 등을 맡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1960년대 중반부터 부산은행에서 육상 종목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부산육상연맹 업무를 지원하게 된 지 50년 정도 되었죠. 2015년 BNK부산은행 육상팀이 정식 창단되면서 제가 초대 감독을 맡았습니다.”

BNK부산은행 육상팀에는 현재 4명의 선수가 활약 중이다. 400m 허들 종목의 이승윤 선수는 팀의 주장이자 플레이 코치 역할을 맡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최기만 선수는 지난해까지 400m 종목 메달을 휩쓸고 올해부터 400m 허들로 변경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김찬민 선수는 장대높이뛰기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홍일점 이다인 선수는 높이뛰기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최기만 선수는 기존 400m에서 400m 허들로 종목을 변경했습니다. 400m를 뛰는 속도와 지구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허들을 넘는 테크닉 훈련에 집중하고 있어요. 400m 허들 종목은 다른 단거리 종목과 달리 허들과 허들 사이 보폭 수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반복적 연습을 통해 최적화된

**이승윤 선수의 두 역할**  
- 주장, 플레잉 코치

경찰청 체육단 전역 후 2008 ~2014년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한 이승윤 선수는 400m 허들 종목의 베테랑이다.

“제가 30대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20대이다 보니,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훈련이 없는 시간에는 함께 예쁜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해 주면서 저를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주장 겸 플레잉 코치로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이 선수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자세 수정 등의 코칭한 내용을 선수들이 잘 받아들여서 달라진 점이 확연히 보일 때라고 한다. 또한 후배 선수들이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많이 긴장될 때 어떻게 완화하면 좋은지 먼저 조언을 구할 때도 부듯하다고.

“BNK부산은행과 감독님께서 훈련할 때 불편하거나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힘든 점은 별로 없어요. 기량이 약간 떨어질 때도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팀은 부산지역 출신 육상 선수를 집중 육성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 선수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에게 육상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순위가 잘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훈련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기록이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죠. 때문에 기록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성취감을 얻고,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제가 육상을 해온 원동력이자 매력입니다.”



**400m 에이스에 허들까지, 최기만 선수**

‘육상 최기만’으로 검색하면 최 선수가 활약한 대회 뉴스, 인터뷰한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처럼 그는 400m 종목 에이스이자 화제의 인물이다. 올해부터 최 선수는 400m 허들로 종목을 변경한 후, ‘제5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에 출전했다. 3개 대회 기록은 각각 ‘52.94초’, ‘52.19초’, ‘51.13초’로 꾸준히 단축되고 있어 앞으로 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

“제가 천식이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달리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산대학교 꿈나무 선발대회에 경험 삼아 출전한 것을 계기로 육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죠.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권유로 멀리뛰기 대회에 출전해 2위를 기록했어요. 그때 심판 선생님께서 저를 눈여겨보시고 육상에 본격적으로 입문해 보라고 제안하셨죠. 이를 계기로 멀리뛰기, 단거리 종목 등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400m 종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성장기가 지나면 천식 증세가 거의 사라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

아서 지금도 주사 치료 등 정기적 관리를 병행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400m와 400m 허들 경기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400m는 중간에 실수가 약간 있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400m 허들은 한번 실수해버리면 리듬이 무너져서 만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경기용 허들의 높이는 생각보다 꽤 높는데, 91.4cm이다. 최 선수가 400m 허들로 변경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고관절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세를 낮추고 리듬감 있게 허들을 넘는 것이라고 한다.

“육상은 저에게 한계감을 없애주는 ‘도파민’ 같은 존재 같아요. 육상을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거든요. 땀 흘려 노력한 만큼 매번 기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시합 때는 짜릿짜릿한 기분도 들어요. 제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BNK부산은행 방성민 행정님과 관계자분들, 감독님 등 제가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중등 조정 대회에서 무시무시한 강세를 보이는 팀이 있다.  
7년 연속 메달을 획득한 엄궁중학교의 조정부. 오늘도 힘껏 노를 저으며 우승을 향해 나아간다.

ROWING

##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부산 유일 중등 조정부의 자부심

엄궁중학교 조정부

### 성실함으로 빛은 실력

조정은 뒤로 나아가는 것을 겨루는 독특한 해양스포츠다. 부산 중등부에서는 엄궁중학교가 유일하게 조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창단 이후로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기록해왔다. 중등 조정 선수들에게 엄궁중학교의 명성은 독보적이다.

“처음 창단할 때는 배 한 척도 없었어요. 그랬던 엄궁중학교의 조정부가 누구나 알아주는 강팀이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학부, 실업팀에서도 ‘엄궁중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근 7년간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단 한 번도 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한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서유록 코치의 교육 철학 덕분이다.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꾸준히 노력해야 조금씩 빛을 발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났을 때 찾아오는 보람이 무엇인지 안다면 노력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운동선수는 항상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기에 마음가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에 늘 선수들에게 스포츠맨십이나 인사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 코치는 감독이기 전에, 선수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이고자 한다.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올곧은 선수를 키우는 일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 함께 뛰는 또 한 사람

엄궁중학교 조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은 서유록 코치뿐만 아니다. 남정근 교사 또한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원래 스포츠를 좋아했던 그는 조정을 접한 뒤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저는 항상 선수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처음 엄궁중학교로 왔을 때는 조정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따로 연수를 가기도 하고, 조정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올해로 4년째 조정부를 맡고 있다. 이제는 선수들과 기쁨, 좌절, 그리고 땀과 웃음을 함께 나누며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되어주고 있다. 남정근 교사의 가장 큰 보람은 선수들이 이뤄낸 노력의 결실을 지켜보는 일이다. 다양한 성과를 낸 엄궁중학교의 조정부지만 그 중에서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예선전 때 정말 날씨가 추웠습니다. 워낙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어서 걱정이 많았죠. 선수들의 컨디션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승전 당일, 다행히 날씨가 좋아 안심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믿음에 보답 하듯, 당당히 1위를 차지했죠.”



**물살을 타고 가는 꿈**

서유록 코치와 남정근 교사는 언제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선수들이 부산 유일 조정부라는 것에 긍지를 가지면서도 더 멀리 나아가길 바란다.

“부산이 해양 도시잖아요. 해양 도시에서 해양스포츠를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부산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조정 종목에서 엄궁중학교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선수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항상 고생이 많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된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수들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선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주인공, 서부건 선수**

엄궁중학교 3학년 서부건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조정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시작한 건 부모님의 권유였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새벽 훈련이나 방과 후 훈련 등이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경기에 출전하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거기에 우승까지 하니, 점차 조정 선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있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요. 훈련을 꾸준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정의 떠오르는 신성, 조민범 선수**

엄궁중학교 2학년 조민범입니다. 이상철 체육 선생님의 추천으로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조정은 뒤로 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선수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제가 조정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희 팀은 특히 스타트에 강해서 뒤쫓아오는 선수들을 볼 기회가 많아요. 이런 장점을 살려서,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어요. 힘껏 노력해서 저를 믿어준 부모님, 감독님, 선생님께 메달을 딴 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과 문화의 숨결

# 연제구 & 수영구

연제구와 수영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의 주요 경기가 펼쳐지는 중심 무대다. 육상과 바둑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경기장과 더불어, 그 밖에 만날 수 있는 도시의 문화와 여유로운 공간들도 함께 소개한다.

자료 및 사진 제공: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수영구청

### 연제구



#### 도전과 환호의 무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이번 전국체전의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가 열리는 핵심 경기장이다. 1993년 착공해 7년 9개월 만에 완공된 이 경기장은 최대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경기장으로, 파도 형상의 지붕과 곡선을 살린 조형미가 돋보인다. 국내 최초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1종 공인 육상경기장이기도 하다.

이번 전국체전을 맞아 트랙과 관람 환경을 대폭 정비해, 25년만의 전국체전이 더욱 완성도 높게 치러질 예정이다. 다양한 종합공연도 가능한 다목적 콤플렉스로 설계된 이곳은 부산 체육의 자부심이자, 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함께 신설되는 산악 종목 경기장은 사직종합운동장 중앙광장에

마련될 예정으로, 육상과 함께 프레(pre)대회를 통한 경기장 점검도 진행된다. 또한 연제구 내에서는 궁도, 소프트테니스, 합기도, 볼링 등의 종목도 함께 개최되어 더욱 다양한 스포츠의 무대가 펼쳐진다. 사직 일대는 체육 인프라가 밀집된 부산의 스포츠 중심지로, 전국체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무대로 주목 받고 있다.

#### 문화와 휴식이 흐르는 도심의 허파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에는 도심 한가운데서도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경기를 관람한 뒤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이들 장소는 연제구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



### 1. 연산교차로-오방맛길

연산교차로 일대는 예부터 명성이 자자한 먹자 골목이다. 최근 연제오방상권과 오방맛길이 조성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어느 한 집 딱 집어서 고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맛집이 밀집해 있으며, '육해공'이 모두 맛있다고 평가 받는 연제구 대표 미식 지역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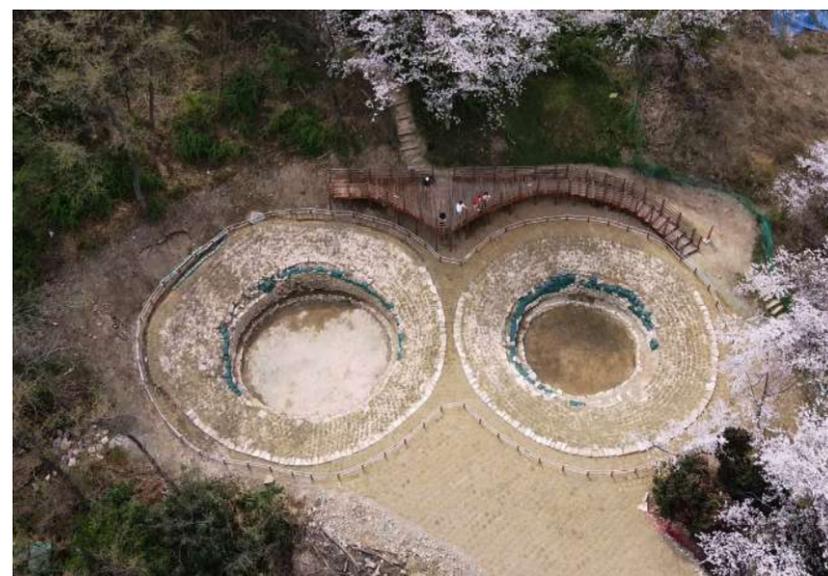


### 2. 연сандong 고분군

연сандong 고분군은 5~6세기에 조성된 삼국시대 고분으로, 신라와 가야의 고분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지하 유구와 지상 봉분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유일한 고분군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고분들의 주인공은 과거 이 지역을 지배했던 거칠산국의 유력층으로 추정된다. 배산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위에 18기의 봉분이 줄지어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지켜온 수호자들처럼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묘하게 고요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일상 속에서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 3. 배산성지

배산성지는 연제구 연сандong 배산의 중턱과 정상부에 자리한 옛 성터다. 이 성지는 삼국시대 거칠산국 시기의 유적으로 여겨지며, 배산 자락에 위치한 집수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기까지 사용된 다양한 생활 토기와 기와 수백 점이 출토되었다. 2017년 발굴조사에서는 영남 최대 규모의 계단식 집수지와 함께 곡물 세금 내역이 적힌 목간, 우리나라 최초의 죽발(竹簾) 등 희귀 유물이 발견되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2024년 성곽 유구까지 확인되며 그동안 추정에 머물렀던 성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연сандong 일대의 방어 전략과 도시 구조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수영구

- ▶ 경기장
- 관광 명소



### 정신의 승부, 바둑이 펼쳐지는 공간

제106회 전국체전의 바둑 경기는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내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곳은 2019년 6월, 옛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조성된 복합 체육·문화 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평생교육, 청소년 문화 활동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곳이다.

총면적 약 9,913m<sup>2</sup> 규모의 부지에는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의집 세 개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 있으며, 어울림마당과 다목적체육마당, 주민쉼터 등이 구성되어 있어 평소에도 다양한 축제와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바둑 경기가 열리는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체력단련실은 저렴한 이용료로 수준

높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파트너로 큰 역할을 해왔다.

조용한 집중력과 전략의 싸움이 펼쳐질 바둑 경기가 이러한 지역 밀착형 공공시설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체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지적 승부는, 전국체전이 단순한 경기의 장을 넘어 지역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축제임을 잘 보여준다.

### 해안선과 함께 걷는 바다 도시의 매력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과 황령산을 품은 지역이다. 경기장을 찾은 이들이 도심과 바다,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경기 관람 후에는 광안대교가 한눈에 펼쳐지는 광안리 해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민락수변공원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자.

### 1. 광안리 해변

광안리 해변은 좋은 품질의 모래사장과 반달모양의 넓은 백사장, 사계절 다양한 축제, 버스킹 공연이 있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명소다. 해상에는 광안대교가 아름다움을 더하며, 해변 주변에는 제각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카페, 진미를 자랑하는 횡집, 음식점 등이 모여 있다. 총면적 82,000m<sup>2</sup>, 사장 길이 1.4m<sup>2</sup>, 사장 폭 25~110m<sup>2</sup>이며 수영구 남천동, 광안동, 민락동에 걸쳐 있다.



### 2. 광안대교

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대의 해상 복층 교량으로, 길이가 7.42km에 이른다.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을 잇는 광안대교는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첨단 조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 3. 민락수변공원

바다와 휴식 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이다. 길이 543m, 너비 39m 총 30,752m<sup>2</sup> 규모로 바닥에는 컬러 블록을 깔았고, 화단과 그늘집,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바다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조성된 배 모형 야외무대에서는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출입구의 '멍청한 사자', '똥똥한 고양이' 등의 유쾌한 이야기를 담은 벽화와 컬러 테트라포드가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바다를 배경 삼아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다.



# 2025 부산 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광안리 해변공원 특설경기장에서 '2025 부산 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가 열렸다. 비 오는 날씨에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바다를 배경 삼아 힘차게 비상했고, 광안리 해변은 열기와 환호로 가득 찼다.



### 모래사장 위의 비상, 광안리를 들썩이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육상 단일종목 대회, '부산 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가 올해도 광안리 해수욕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 대회는 아시아육상연맹(AAA)의 승인을 받은 국제대회로, 부산시가 후원하고 대한육상연맹이 주최, 부산광역시육상연맹이 주관한다. 2009년 용두산에서 첫발을 내디딘 대회는 2019년 10주년을 맞아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무대를 옮겼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두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푸른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오직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다. 경기는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도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선수들이 백사장 위로 높이 솟구칠 때마다 감탄과 박수가 쏟아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순간마다 관중도 숨죽이며 긴장한다. 그 흥미진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경기에 빠져든다.

또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경품행사와 축하공연, '드론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도심 속 활기찬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4일 밤에는 올해 대회를 주제로 한 드론쇼가 펼쳐져, 장대높이뛰기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하늘 위에 아름답게 수놓으며 여름밤의 낭만을 더했다.

### 비를 뚫고, 장대를 타고... 도약의 순간들

올해 대회에는 이들 동안 전 세계 15개국에서 온 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누가 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흐리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의 도약은 빛났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자부에 국가대표 3인방 임은지, 조민지, 배한나 선수가, 남자부에는 국내 기록 보유자이자 지난해 은메달리스트인 부산 연제구청 소속 진민섭 선수가 출전해 기대를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태국 선수들의 선전이 특히 돋보였다. 여자부에서는 촌티차 카붓과 차야니사 촘추엔디 선수가 나란히 4m를 넘으며 공동 1위에 올랐고, 남자부에서도 팟사퐁 암사망 선수가 5m50를 뛰어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U20(20세 이하) 남자부에서는 그라이위치 파냐사왓 선수가 5m를 기록하며 태국에 또 하나의 금메달을 안겼다. 태국 선수들의 이러한 '메달 싹쓸이'는 대회 조직위원회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치열한 접전은 여자부에서 펼쳐졌다. 카봇과 춤추엔디 외에도, 카자흐스탄의 폴리나 이바노바, 호주의 올리비아 그로스 선수가 모두 4m를 넘었다. 이바노바와 그로스 선수는 2, 3차 시기에 4m를 성공했지만, 이후 4m10 도전에 실패하며 3, 4위로 결정되었다. 반면, 1차 시기에 4m를 넘는 카봇과 춤추엔디 선수는 대회 조직위와의 논의 끝에 순위 결정전(JUMP OFF) 없이 공동 1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한민국의 신수영과 조민지, 배한나 선수는 3m60을 넘으며 각각 7, 8, 9위를 차지했다.

남자부에서는 태국의 암사망 선수와 영국의 찰리 마이어스 선수가 나란히 5m50을 1차 시기에 성공했지만, 파울 수가 적은 암사망이 1위, 마이어스가 2위를 차지했다. 기대를 모은 진민섭 선수는 5m30으로 시즌 베스트 기록을 세우며 5위에 올랐다. 한편, U20 남자부에서는 박재연 선수가 4m70으로 4위, 조성우 선수가 4m40으로 5위를 기록하며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했다.

부산광역시육상연맹 장유현 전무 역시 “부산대회가 알려지면서 유명 선수들의 참가가 많아져 대회 기록도 좋아졌으며, 국내 선수들도 세계적인 선수와 뛰면서 경쟁력이 오르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선수들의 다음 도약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 2025 부산 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경기 결과



### U20 남자부

순위	선수명	나라	최종 기록
1	그라이위치 파나사왓	태국	5.00
2	카이 앤더슨	미국	4.90
3	알렉스 아버스낫	호주	4.80
4	박재연	대한민국	4.70
5	조성우	대한민국	4.40

### 여자부

순위	선수명	나라	최종 기록
1	촌티차 카봇	태국	4.00
2	차야니사 춤추엔디	태국	4.00
3	폴리나 이바노바	카자흐스탄	4.00
...			
7	신수영	대한민국	3.60
8	조민지	대한민국	3.60
9	배한나	대한민국	3.60

### 남자부

순위	선수명	나라	최종 기록
1	팟사퐁 암사망	태국	5.50
2	찰리 마이어스	영국	5.50
3	크리스티안 샴피	미국	5.40
4	마사키 에지마	일본	5.40
5	진민섭	대한민국	5.30(시즌 베스트)
6	한두현	대한민국	5.20

# 90년대 전국체전, 민족의 화합에서 미래 스포츠의 장으로

1990년대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자부심, 민족의 정체성을 녹여낸 복합문화축제로 진화했다. 이 시기 전국체전은 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가고, 지방 균형 발전과 민족 화합, 스포츠 행정의 현대화를 함께 꾀하며 스포츠사에 굵은 발자국을 남겼다.



참고자료 : 김상구, 2007. 8., 『전국체육대회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체육사적 의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 올림픽의 유산, 전국체전에 스며들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감격은 이후 수년간 한국 스포츠계 전반에 강한 영향을 끼쳤고, 전국체전 역시 그 여운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9년 제70회 전국체전은 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의미가 컸다. 50여 개국 해외동포가 참여한 '세계한민족체육대회'와 동시 개최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대회였다. 경기운영의 전산화, GIONS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장 단말기에서 10분 이내에 실시간 결과가 공유되던 순간은 스포츠와 기술이 결합한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 제71회 전국체전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서의 첫 개최, 충주호를 가로지른 수상 성화봉송은 전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분양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활용하고, 도민의 정성 어린 지원 속에 치러진 대회는 '따뜻한 체전'이라는 평을 얻었다. 여자 양궁 김수녕이 여대부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과 함께 6관왕에 올라 고향 충북의 전국체전을 더욱 빛냈다.

## 지역 균형과 향토문화의 만남

1990년대 전국체전은 점차 지역문화와 스포츠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91년 전라북도 전국체전은 예산의 70% 이상을 경기장 인프라에 집중하면서도 개최식에서는 전통 판소리와 전라감사 행차, 춘향전을 매스게임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의 깊은 문화적 뿌리와 예술성을 드러냈다. 전주에서 이리, 남원 등 7개 시군으로 분산된 개최 방식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고, 자원봉사자 7천 명이 동원되며 감동의 장을 연출했다.

1993년 광주광역시 전국체전은 문화체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한겨레 하나 되는 화합체전'을 표방하며 금남로 전야제에서 전국의 전통 예술단체가 거리 퍼레이드를 펼쳤고, 대회 기간에는 대구 선수단이 민주인사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와 대구 간 교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었다. 마라톤에서 발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한 이봉주는 국민적 감동을 자아내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중소도시 포항이 주 개최지였던 경상북도 전국체전(1995)은 전국체전이 대도시 중심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13개 도시가 함께 대회를 운영하며 숙박과 교통의 한계를 극복했고,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와 협력해 종목을 분산 개최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선보였다. 경기장의 전산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며 분산개최의 효율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새천년 전국체전, 스포츠의 미래를 그리다



1996년 강원도 전국체전에서는 마스코트 '달곰이'를 도입해 대회 브랜드를 강화했고, 1997년 경상남도 전국체전에서는 최초의 야간 개회식을 선보이며 전국체전의 시각적 매력을 끌어올렸다. 1998년 제주도 전국체전은 섬 지역에서의 첫 개최라는 점 외에도 성화 점화식에서 설문대 할망 신화를 재현해 감동을 자아냈다. 해녀 복장의 표지판수, 물허벅춤, 제주방언 등 제주만의 정체성을 가득 담은 연출은 전국체전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9년 인천광역시 전국체전은 20세기의 마침표이자 21세기를 향한 전국체전의 전환점이었다. '사이버 체전'을 표방하며 전국체전 역사상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하루 1만 2천 명, 총 8만 4천 명의 누리꾼이 경기정보에 접속했다. 각 경기장의 실시간 속보 제공은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한편, 향후 디지털 스포츠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기록 면에서도 풍성했다. 양궁 장용호는 세계신기록(189점)을 수립했고, 역도의 김태현은 아시아신기록을 세우며 MVP에 선정됐다. 이 대회에서만 36개의 한국신기록과 10개의 타이기록이 수립되었으며, 인천은 사상 처음으로 종합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록보다 감동, 스타보다 시민

이 시기 전국체육대회는 점차 관중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1994년 대전광역시 전국체전은 'IOC 창립 100주년'과 '국악의 해'를 기념해 국악 공연을 개회식과 연계하고,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카드섹션과 가족 매스게임을 도입해 관객 참여형 전국체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학생 동원을 최소화한 대회 운영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전국체전은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인기 종목의 리그 경기와 시기가 겹치면서 언론의 주목도는 낮아졌고, 대한체육회가 한국야구위원회에 전국체전 기간 중 리그 중단을 요청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녕, 이봉주와 같은 선수들의 감동적인 활약은 전국체전의 존재감을 이어가게 했다.

전라북도에서는 롤러스포츠에서만 16개의 한국신기록이 쏟아졌고, 수영과 역도, 육상에서도 꾸준히 기록이 갱신되었다. 특히 역도에서는 체급 개편과 함께 47개의 신기록이 쏟아진 해도 있었다. 이러한 기록 갱신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며, 지역 체육 활성화와 선수 육성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했다.



이처럼 1990년대 전국체육대회는 기록과 기술, 감동과 화합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전국체전은 단지 우승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지방의 문화가 피어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였다. 변화와 도전의 연속 속에서 전국체전은 한국 스포츠 문화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아냈고, 새로운 세기를 향한 희망의 불꽃을 밝혔다.

# 광안리에 도착한 새로운 파도!

## 수영구 SUP협회

해양스포츠를 대표하는 서핑과 더불어 최근 선풍적 인기를 구가하는 종목이 있다.

바로 Stand UP Paddleboard(SUP). 단어 그대로 '서서 타는 보드'로 진입장벽이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 수영구는 '수영구민 SUP 대회'를 개최하는 등

SUP를 광안리를 대표하는 해양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영구 SUP협회의 시작을 함께한 구남흥 회장과 구남현 부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았다.



### 'SUP' 협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2024년 4월에 창립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둘 다 서핑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서퍼들과 교류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SUP를 접하게 됐어요. 당시는 SUP라는 종목이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는데, 서핑과 유사하면서도 진입장벽이 낮은 점이 인상 깊더라고요. 마침 수영구청에서도 SUP의 대중화 가능성을 알아보고 저희에게 수영구 SUP협회를 운영해보라며 제안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SUP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SUP 종목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SUP는 스탠드 업 패들보드, 말 그대로 서서 타는 보드입니다. 1960년대 하와이 서핑 강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롱보드 위에 서서 카누 패들을 사용했는데 이 방식이 '비치 보이 서핑(Beach Boy Surfing)'이라 불렸고 지금의 SUP에 이르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들어서 하와이 서핑 챔피언 래어드 해밀턴(Laird Hamilton)과 데이브 칼라마(Dave Kalama) 등이 SUP를 체계적으로 즐기면서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훈련, 크로스 트레이닝, 서핑이 없는 날에도 운동 대체 수단으로 SUP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서핑을 즐기는 인구를 거의 따라잡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스포츠 영역을 넘어 여행, 레저, 요가, 낚시 등과 융합되면서 그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 경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세부 종목이 많지만 가장 대중적인 빅3 종목은 스프린트, 장거리, 테크니컬입니다.

초기 SUP 대회는 스프린트와 장거리 2개 부분만이 운영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국제 대회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독립적인 테크니컬 종목이 신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프린트와 장거리 종목이 정해진 구간을 직선으로 빠르게 주파하는 것인 반면 테크니컬은 보드 컨트롤 기술을 활용해 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로 승패가 갈립니다.

스프린트와 장거리가 선수들의 시원한 질주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테크니컬은 섬세한 보드 컨트롤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 서핑과 SUP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SUP가 서핑에서 파생된 종목인 만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엎드리는 자세가 없다는 것과 파도 없이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핑은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해변 멀리까지 엎드린 자세를 하고 팔로 저어 나아가야 하는데, SUP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잔잔한 수면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또, 서서 타기에 적합하도록 보드의 크기를 키웠기 때문에, 부력도 강합니다. 서핑보드보다 균형 잡기가 수월해서 초보자들도 1~2시간 연수를 받으면 혼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덕분에 체험 콘텐츠로도 발전하고 있는데, 수영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SUP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영구 SUP협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요?

우리 협회가 가장 우선하는 건 SUP의 대중화입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의 특성을 살려 수영구민들은 물론 광안리를 찾는 관광객에도 관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UP 관련 숏들이 광안리 해변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SUP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수영구청의 지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2~3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장비를 대여하고 기본 강습까지 수료할 수 있어요. 사전에 계획을 하고 숨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변을 거닐다가 즉흥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기본 교육을 수료한 직후 청바지를 입은 채로 바다로 나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광안리에서 해양스포츠를 관광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비치클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협회를 비롯한 여러 해양스포츠 동호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안 다이버분들은 근해 물속을 누비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협회 자랑거리가 있다면?

협회가 수영구 광안리에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라 생각해요. 광안리 인근에는 숙박, 여가시설이 많은데, 세계 어딜 가도 해변 근처에 이만한 도시가 자리한 공간은 흔치 않아요. 숙소는 물론이고 여가시설도 충분하니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 이만한 곳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높은 파도가 드물다는 것이었는데, SUP는 파도에 의존하지 않는 종목이니, 광안리는 SUP를 위한 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울러 수영구에서 SUP 대중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고 지원해주는 덕에 협회 회원들이 한층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SUP 강습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해양스포츠를 동경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물 위에 나가본 적 없는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SUP는 어린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이 있고, 유사시 도움을 받기 쉬운 특성 덕분에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학생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학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 SUP 초심자에게 한마디해 주신다면?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 광안리, 해변에서 바라보는 광안대교 풍경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안대교 아래에서 이쪽 해변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드물 겁니다.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SUP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런 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광안리 해변을 구경하시다가 서핑숍이 보이면 주저 말고 들어가 문의하세요. 언제든지 SUP의 세계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면서 평소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제20회 여성체육대회 여성들의 우먼 파워를 느끼다

###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김혜정

제20회 부산여성체육대회가 푸른 하늘 아래, 여성들의 열정과 단합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여성 동호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간의 소통과 화합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안겼다.

올해 대회에서는 풋살이 새롭게 도입되어 더욱 다양한 스포츠 선택지를 제공했다. 이는 여성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의미를 가지며,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되었다. 부산의 16개 구·군이 참여하면서 넓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경기장 안팎에서는 서로를 응원하며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생활체육은 단지 몸을 움

직이는 활동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힘이 된다. 이번 대회는 그런 생활체육의 가치를 여성 스스로 증명한 자리였다.

그중에서도 여자부 테니스 결승전은 관중과 참가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명승부였다. 경기는 3세트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접전 끝에 타이브레이크에 돌입했다. 양 팀 모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서브 게임은 대부분 지켜내며 6-6 팽팽한 균형을 이루었다. 타이브레이크 초반, 남구 소속 선수는 날카로운 크로스 리턴과 민첩한 네트 플레이로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경기의 마지막 순간, 그 선수가 시도한 로브 샷이 상대 코트 라인 안쪽에 정확히 떨어지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매치 포인트를

따낸 순간, 남구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감격을 나눴다. 결승전을 지켜본 시민들은 “두 팀 모두 평소 훈련량이 많고 팀워크가 뛰어나 이번 결과는 놀랍지 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관람객은 “생활체육 경기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 높은 경기였다. 여자 테니스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의 테니스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여성 동호인들의 끈기와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준 무대였다. 이는 여성 생활체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가꾸고,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그 힘. 제20회 여성체육대회는 그 ‘우먼 파워’를 확실히 증명해냈다.

# 프레, 알레.

## 칼끝의 방향을 함께 하는 사람

### 2025 동의대학교 펜싱부 한우리 감독

#### 제4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이정주

부산광역시 내 스포츠 강팀을 꿈으라 하면 동의대학교를 빼놓을 수 없다. 동의대학교 야구부, 축구부, 배드민턴부, 태권도부, 유도부, 펜싱부 중 강세를 띠고 있는 펜싱부 한우리 감독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동의대학교 펜싱부는 2001년 남자부 창단, 2008년 여자부 창단으로 각각 만 25주년, 18주년에 들어섰다. 펜싱팀에 있어서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펜싱 스타를 배출하고, 회장배 전국펜싱선수권대회 사브르 단체전 및 대학연맹 전국펜싱선수권대회 사브르 단체전 등 많은 대회에서 입상하며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활약이 가능한 이유는 감독의 숨은 공이 있기 때문이다.

동의대학교 한우리 감독은 모교 동의대학교 졸업 후, 후배들에게 펜싱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2011년부터 동의대학교 펜싱부 지도의 칼을 잡았다. 모교의 지도자라는 이름 아래 부담감이 있었지만 ‘안 되는 것은 없다’라는 그의 마인드처럼 부담감은 새로운 자극제가 되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포기만 안 하면 실패는 없어요. 내가 아예 안 된다면 뒤돌아서서서 것도 맞지만, 포기하는 것과 방향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포기만 안 하면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1%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가는 감독의 체제 아래, 선수들도 이에 응답하듯 긍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절대로 성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성

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열렸던 전국체육대회에서 증명되었다.

“펜싱 특성상 대학팀과 실업팀이 함께 경기를 진행해요. 동문 지도자 선배님이 소속된 실업팀과의 경기 끝에 남자부 여자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어요. 선수 시절과 지도자 시절을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냈을 때가 가장 기분 좋고 기억에 남아요. 언제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어요. 될 때까지 두드리면 결국 성공할 수 있어요. 선수들에게도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범접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돌아서는 것도 맞지만 그 상태에서 포기하기보단 방향을 바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길 원해요.”

한우리 감독이 이토록 팀에 기여할 수 있었던 동기는 선수들에 대한 믿음과 펜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었다.

“처음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땐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펜싱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도를 좋아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알게 된 것을 선수들에게 알려주면, 나중에 선수들이 나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을 때 펜싱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계기였죠. 지금의 선수들이 더 성장해서 저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되고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

는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저는 선수들의 평소 실력을 잘 알잖아요. 시합에서 50~60%만 발휘되어도 메달권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멘탈이 흔들리고 당장 지더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지켜봐 주고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우리 감독 코치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현재 펜싱 종목은 과거에 비해 많이 홍보되었고, 많은 펜싱 스타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펜싱으로 유명한 나라와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펜싱은 세계에서 정점을 찍는 상황이다. 신체 조건상 서양 선수들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차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충분히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현재 펜싱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언제든지 본인이 올림픽에서 1등을 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동의대학교 펜싱부는 앞으로 많은 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2000년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사람들이 펜싱에 관심이 있을 때, 특히 부산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성적으로 펜싱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부산 시민들이 펜싱을 보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부산 연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부산의 상징성을 띠게 되었을 때 대리 희열 혹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너지가 돼서 선수들이 부산을 대표하는 펜싱 선수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동의대학교는 이제 국내를 넘어 국외를 바라보고 있다. 국가대표 양성을 통한 세계 진출.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펜싱 선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동의대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해 국가대표가 되어 새로운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부산에서 배출되었다는 명예를 동기 부여로 하여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물길 따라 만나는 낙동강의 매력

# 2025 낙동강 따라 모바일 스탬프투어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낙동강 모바일 스탬프투어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더욱 다채로워진 코스로 낙동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부산·경남 지역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다.



## 함께 지키고 가꾸는 소중한 낙동강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 함백산에서 시작해 영남 내륙을 지나 남해로 흘러드는,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다. 오랜 세월 '영남의 젖줄'로 불리며 우리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키워온 터전이자,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주었다. 특히 부산으로 흘러드는 낙동강 하류는 수많은 철새들이 쉬어가는 생태의 보고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늘 우리 곁을 지켜온 낙동강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가꾸기 위해, 2022년 부산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와 양산시, 김해시는 힘을 모아 '낙동강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낙동강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이색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낙동강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낙동강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낙동강의 푸른 물길을 따라 부산·경남의 아름다운 명소를 여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스탬프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재미는 물론, 모은 스탬프로 선물까지 받을 수 있어 지난해 조기 마감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더욱 새롭고 풍성해진 '2025 낙동강 따라 모바일 스탬프투어'가 진행 중이다. 특히 밀양시가 새롭게 참여하고, 낙동강 자전거길을 활용한 코스가 추가되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이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 두 가지 테마, 두 배의 즐거움!

이번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크게 두 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먼저 5월부터 7월까지는 낙동강 자전거길 코스가 운영된다. 이 길은 양산 물문화인증센터에서 출발해 부산의 다대포공의낙조분수까지 이어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일부로, 산과 강을 따라 펼쳐지는 영남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코스다.

참여 방법이 간단하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나비 스탬프' 앱을 내려받고, '낙동강 따라 자전거길 스탬프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GPS를 통해 스탬프가 자동으로 적립되며, 누적 개수에 따라 선물을 신청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꼭 지켜라. 8월은 무더위로 투어가 잠시 중단되며, 9월부터 11월까지의 '가을 명소투어'가 이어진다. 양산 내원사와 밀양 표충사 등 아름다운 단풍과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가을 명소 14곳이 코스로 구성되었다. 부산 지역에서는 단풍으로 유명한 병풍암 석불사와 운수사,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는 삼락생태공원, 핑크물리로 물드는 대저생태공원 등이 포함된다.

올여름,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 낙동강을 따라 자연 풍경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과 선물을 동시에 챙겨보는 건 어떨까.



## 코스 1 낙동강 따라 자전거 투어

- 양산** 물문화인증센터 ▶ 원동역 ▶ 가야진사(9.6km)
- 김해** 대동생태체육공원 ▶ 낙동강소원공원 ▶ 매리(8.0km)
- 밀양** 하남 파크골프장 ▶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 명례강변공원 ▶ 해동마을회관(7.2km)
- 부산북구** 금곡역 ▶ 동원진나루터센터 ▶ 화명요트계류장 ▶ 감동나룻길리버워크(7.4km)
- 사상구** 삼락IC ▶ 낙동제방벚꽃길 ▶ 감전교차로 ▶ 엄궁농산물도매시장(7.6km)
- 강서구** 맥도생태공원 ▶ 대저생태공원 ▶ 대저캠핑장(8.3km)
-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 ▶ 부네치아 ▶ 고니나루터 ▶ 다대포공의낙조분수(7.9km)

## 코스 2 낙동강 따라 가을명소 투어

- 양산** ① 내원사 ② 황산공원
- 김해** ③ 김해낙동강레일파크 ④ 대동생태체육공원
- 밀양** ⑤ 영남루 ⑥ 표충사
- 부산북구** ⑦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⑧ 병풍암 석불사
- 강서구** ⑨ 대저생태공원 ⑩ 가덕도 대항항 포진지 동굴
- 사상구** ⑪ 삼락생태공원 ⑫ 운수사
- 사하구** ⑬ 을숙도 ⑭ 다대포 고우니생태길



## 전국 최초 '체육국' 출범 100일,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체육회 동행 행사 개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및 스포츠 천국도시 염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체육국 출범 100일을 기념함과 동시에 체육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체육회장, 부산광역시의회장,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체육인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체육국 출범은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이며 앞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제

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전국의 시도 선수들이 화합하는 스포츠 대축제이자 부산이 스포츠 천국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고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 여정에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은 다수의 종목에 참가하여 상위권에 진입함으로써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앞으로도 각종 홍보 캠페인, 선수 지원,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전국체육대회 붐을 조성하고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2025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단합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사 확대 계획

부산광역시체육회는 6월 27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과 함께 단합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23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은 ‘조직 안에서 나답게 일하기’라는 주제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이었다. 직무교육에 이어서 진행된 단합체육대회에서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구·군체육회 간 단합과 친목을 다졌다. 단합체육대회 경기는 풋살, 줄넘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협동심을 기르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단체 종목으로 구성, 이날 행사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직장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

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번 직무교육과 단합체육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서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부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 중구체육회



#### 제22회 중구체육회장배체육대회 개최

6월 22일(일), 광일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외 3개소에서 '제22회 중구체육회장배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총 4개 종목(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이 진행되었으며, 32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쌓은 실력을 겨루고 화합하는 장으로서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서구체육회



#### 2025년도 에메랄드볼 라인댄스 대회, 최우수상 수상

6월 8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2025년도 에메랄드볼 라인댄스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댄스스포츠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후원한 가운데 전국의 생활체육 라인댄스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무대였다. 서구 소속 '대신권' 팀은 포메이션 라인댄스 연령혼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였고, 서구 동호인들도 개인 각 부문 1위를 비롯해 2위와 3위까지 수상하며 서구 대표단 전체가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 동구체육회



#### 동구청장배 3×3 청소년 농구대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6월 21일(토) 동구국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동구청장배 3×3 청소년 농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열정 가득한 부·울·경 중등부·고등부 팀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길렀다. 대회 결과, 중등부 우승은 '인피니트스포츠'이 고등부 우승은 '별로못해요'가 차지하였다.

### 영도구체육회



#### 제20회 여성체육대회, 영도구 배구팀 3위 달성

6월 13일(금)에 열린 '제20회 여성체육대회'에서 영도구 배구팀이 3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여성 체육 활성화와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장에는 영도구체육회 한영익 회장을 비롯해 여러 이사가 참석하여 선수들을 응원하며, 여성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부산진구체육회



#### 2025년 백양산 달빛걷기 행사 개최

6월 11일(수),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2025년 백양산 달빛걷기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진구청이 주관하고 부산진구체육회가 운영을 지원한 가운데 3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도심 속 자연을 느끼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으며, 김영옥 부산진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의 운동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동래구체육회



#### 동래구체육회, 부산미남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6월 16일(월), 동래구체육회와 부산미남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체육회 회원 및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와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이는 지역 체육인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래구체육회와 부산미남병원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남구체육회



#### 2025 부산광역시 남구체육회 임원(협회장) 생태공원 탐방

남구체육회는 6월 22일(일) 합천군 일원에서 '2025 부산광역시 남구체육회 임원(협회장) 생태공원 탐방'을 하였다. 집결지 부산박물관에서 오은택 구청장과 박수영 국회의원, 서성부 남구의회 의장 등의 배움을 받으며 남구체육회 정춘식 회장 및 임원, 회원종목단체협회장, 남구청 체육지원팀, 생활체육지도자 등 30여 명이 무사히 탐방을 마쳤다.

### 북구체육회



#### 2025 어린이 체능교실·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6월 15일(일), 화명수상레포츠센터에서 북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총 58명을 대상으로 '2025 어린이 체능교실·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플라이, 블롭점프, 뉴디스코 등 8종의 수상레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레포츠를 체험하고, 체력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 해운대구체육회



#### 동체육회 간담회 개최

6월 11일(수), 해운대구체육회 소속 동체육회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동체육회장 및 실무자 11명이 참석하여 동체육회 운영 방안 및 예산, 전국(장애인)체전 서포터즈 모집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해운대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사하구체육회



#### 제19회 사하구족구협회장배 초청 족구대회 개최

6월 8일(일), 을숙도 A 축구장에서 '제19회 사하구족구협회장배 초청 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초청 통합부, 사하관내부 등 총 4개 부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족구협회, 부산광역시족구협회, 사하구족구협회에 등록된 팀들이 참가하였다.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된 참가 팀들은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이번 대회는 족구의 발전은 물론, 동호인 간의 화합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 금정구체육회



#### 부회장 간담회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6월 11일(수) 부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 활성화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서포터즈 모집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체육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서포터즈 모집과 관련해 체육회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다.

### 강서구체육회



#### 2025년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2025년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체육대회'가 6월 8일(일) 명지다목적인조잔디운동장 외 10개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강서구체육회 임원, 내·외빈, 11개 종목 선수단, 동호인 1,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처음으로 여성풋살 종목도 추가되어 6개 구·군, 8개 클럽(86명)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동호인 간 유대를 강화하고 단위를 클럽 발전과 강서체육인의 자긍심 고취, 체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 연제구체육회



#### 2025년 제2회 연제구청장기파크골프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6월 9일(월) 파크골프협회 동호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연제구청장기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낯선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플레이로 경기에 임했으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경기 결과, 1위 잔디클럽, 2위 배산클럽, 3위 하나클럽이 차지하였다.

### 수영구체육회



#### 2025 이사회 임직원 시네마데이 단합행사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6월 19일(목)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샷데에서 이사회 임원과 우수 종목 단체 대의원을 초청해 시네마데이 단합행사를 개최하였다. 수영구체육회 황대성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수영구 실업 태권도팀, 우수 종목 단체 대의원 등 총 35명이 참석하여 유대 강화 및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황대성 회장은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 사상구체육회



#### 2025 사상구청장배 배구대회 개최

6월 8일(일), '사상구청장배 배구대회'가 다누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사상구청 및 사상구체육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지역 내 13팀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 이종구 구의회 의장, 사상구체육회 강진태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종 우승은 여자부 'BS,' 남자부 '구덕BIT'가 차지했다. 대회는 지역 주민 간 화합을 돈독히 하고, 사상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기장군체육회



#### 제9회 기장미역다시마배 전국 남·여 배구대회 개최

6월 28일(토)과 29일(일), 기장체육관에서 '제9회 기장미역다시마배 전국 남·여 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남·여부로 나뉘어 치러진 경기는 첫날 조별리그를 치르고 둘째 날에는 결선 토너먼트를 진행하여 전국 동호인 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전국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지역 해양 특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이현창 기사님의 정년퇴임식 개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6월 26일(목) 문화관에서 시설계 이현창 기사님의 정년 퇴임식을 개최하였다. 퇴임식에는 부산국민체육센터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시설과 안전을 위해 고생한 기사님의 마지막 근무일을 함께 기념했다. 이현창 기사님은 2013년에 입사해 12년간 센터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퇴임식은 감사패·기념품 증정, 축사, 이현창 기사님의 퇴임사,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2025년도 생존수영 교육 실시**

북구국민체육센터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 중심 생존수영 교육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수상 안전사고 인식 및 대처 교육, 수중 적응 및 뜨기, 수중 이동교육, 구명조끼 및 구명장비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법을 배운다.



영도국민체육센터

**2025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준비**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2025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7월 중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2025년 부산광역시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6월 20일(금),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제27회 부산광역시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렸다. 대회는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심신 재활, 지역사회 내 화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부산실내빙상장

**YMCD 아기사포초단 공개수업 진행**

6월 25일(수), 부산YMCA 아기사포초단 단원들의 공개수업이 부산 실내빙상장에서 열렸다. 6세 아이들로 구성된 30여 명의 아기사포초단은 이번 공개수업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공개수업 종료 후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스케이트를 타보는 참여수업을 진행하였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제20회 여성체육대회 개최**

6월 13일(금), '제20회 여성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종합실내 테니스장에서 진행된 대회에 16개 구·군 테니스협회 2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부산시민체육대회, 어르신체육대회와 더불어 매년 개최되어 여성 테니스 동호인들의 테니스 동기 부여와 자긍심 고취 등 부산 테니스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평장림체육관

**신평장림체육관 수영프로그램 활성화**

신평장림체육관은 2024년 7월 1일에 개관하여 부산시민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오전 시간대는 여성 회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점심 시간대 역시 많은 시민이 즐겁게 수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평장림체육관은 많은 시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조정 등 시간대별 특징을 고려하여 체육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1

## 2025년 부산광역시 디비전리그 개최

6월 22일(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2025년 부산광역시 디비전리그(부산진구 T7리그)’가 개최되었다. 디비전리그는 대한테니스협회 공모사업으로, 대한민국 테니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전문체육 육성까지 단계

적인 발전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2025년 부산광역시 디비전리그는 T6리그 2개, T7리그 8개로 총 10개 리그가 운영되었다.



###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2

##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2025년 상반기 엘리트선발전 및 레벨테스트 성료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클럽 내 유망주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 ‘2025 상반기 엘리트선발전’ 및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엘리트선발전은 클럽 수업을 기반으로 한 종합 평가를 통해 전문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이번 선발전에서는 수영,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 총 4개 종목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축구 1명, 농구 5명이 전문선수로 최종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클럽 훈련과 연계된 전문 트레이닝을 통해 상위 대회 진출을 목표로 집중 육성된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에서 전문선수로 이어지는 클럽형 엘리트 육성 시스템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유망주를 지속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문의전화 051) 247-9900



AP-01 라운드 긴팔 BLACK  
SS 숏스탑 반바지 BLACK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프로 선수의 스포츠웨어, 어썸스타

# KEEP GOING

롯데디자인츠 선수  
No.21 박세웅  
<https://awesomestar.co.kr/>



#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REUSHION



###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 Reushion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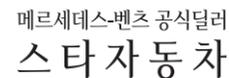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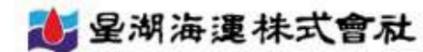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부산진성

조선 세종 21년(1490년) 부산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1972년 5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 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역사 속을 산책하는 도시, 부산

도시 곳곳이 살아있는 박물관이며  
두근두근 가슴 뛰는 역사의 현장인 부산!

“이곳은 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남쪽 국경이며  
나라의 자물쇠와 같다.”

- 남요인후(南微咽喉), 서문쇄약(西門鎖鑰) -

부산진성에 가면 볼 수 있는 글귀로  
부산은 국가 수호에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이며  
한반도의 관문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선열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역사의 도시

부산을 사랑합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